

## 중동 전쟁에 따른 비료 공급망 위기와 글로벌 사우스 식량안보

강문수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연구위원 (kangms@kiep.go.kr, 044-414-1204)

백하은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 연구원 (hebaek@kiep.go.kr, 044-414-1096)

## 차 례

1. 개요
2. 중동발 비료 공급 현황
3. 중동 전쟁이 글로벌 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4. 개도국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과 중동 전쟁에 따른 영향
5. 시사점

## 주요 내용

- ▶ [중동발 비료 공급망 위기] 중동 전쟁 발생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 및 비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면서, 비료 순수입국이자 재정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식량안보 악화 우려가 확대됨.
  - 중동은 세계 글로벌 비료 및 비료 원료의 핵심 수출 지역이며,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LNG 교역의 약 20%, 비료 교역의 최대 30%가 통과하는 핵심 해상 통로임.
  - 주요 비료 가격은 2026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6년 4월 기준 요소 가격은 2월 대비 약 81%, 인산 비료 가격은 약 20% 상승함.
- ▶ [비료 공급이 개도국에 미치는 영향] 중동 전쟁으로 인한 비료 수급 차질은 농산물 생산비와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는 글로벌 사우스 지역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주요 곡물 생산국(미국,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은 질소 비료 사용 집중도가 높아 쌀,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을 중심으로 생산비 상승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대중동 질소 비료 수입 의존도(37%), 요소 의존도(58.3%)가 높고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어서 비료 가격 상승과 공급 감소의 영향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높음.
- ▶ [시사점]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중동 지역 비료 공급 정상화를 위한 국제 협력과 함께 재정이 취약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단기 공급 안정화 및 중장기 농업 생산성 협력이 필요함.
  - [단기] 중동발 질소 비료 공급 차질과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비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며, 개발협력 재원을 활용하여 비료 및 곡물 공급 지원과 중장기적 농업 생산성 제고 협력 사업 확대 필요
  - [중장기] 글로벌 사우스 내 산유국과의 협력을 통한 현지 비료 생산 기반 확대 및 공급망 구축
  - [국제 공조]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글로벌 비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 공조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 모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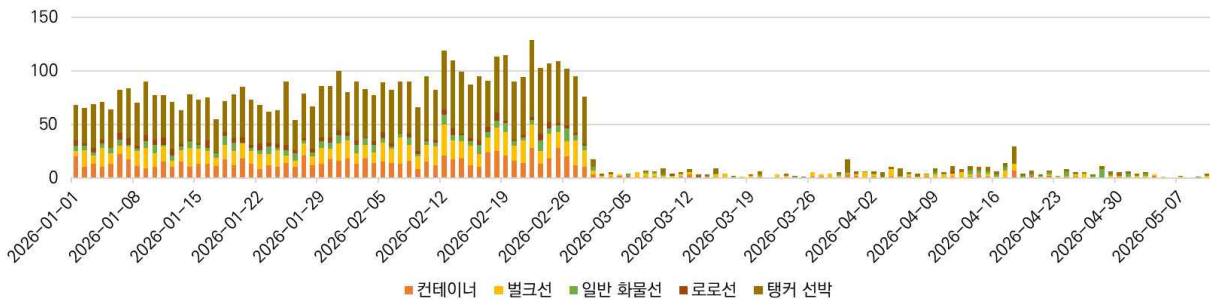
## 1. 개요

### ■ 중동 전쟁(미-이란 전쟁) 발생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라 에너지 수급 위기와 함께 비료 원료 수급 위기도 동반 발생

-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개시된 중동 전쟁은 전쟁 발발 직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초래했으며 4월 13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외곽을 역봉쇄하면서 주요국 선박 통항이 사실상 차단됨(그림 1 참고).
- 전세계 수출 비중이 높은 중동 수출 품목에는 원유(2020~23년 평균 42.2%), LNG(36.6%), 프로판(68.1%), 나프타(39.5%)뿐만 아니라 요소(38.2%), 유황(18.9%), 인산 비료(28.2%) 등 비료 원료와 비료 품목도 포함됨.<sup>1)</sup>

그림 1.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수 추이

(단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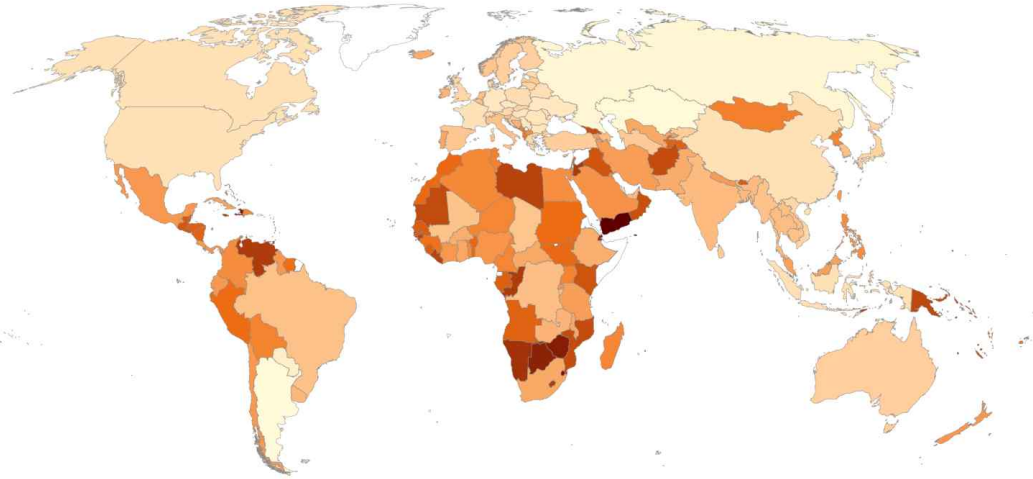
자료: IMF Portwatch 온라인자료(검색일: 2026.5.18.).

### ■ 그중에서도 비료 순수입국이며 재정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가 불거지고 있음.

- 식량 수입 취약성을 보이는 국가는 주로 아프리카, 중남미, 남아시아 및 중동 국가이며 그중에서 재정 여력을 가진 일부 중동 국가를 제외하면 개발도상국은 식량 수입이 원활하지 않거나 수입 가격이 상승할 경우 식량 안보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식량 수입 취약성 지수는 밀, 쌀, 옥수수 등 3대 작물과 수수, 조, 콩, 팥, 대두, 카사바, 양, 감자, 고구마, 플랜테인, 식용유, 설탕 등에 대한 수입 의존도(칼로리 기준)와 국별 식량 불안정 인구 비중을 결합하여 지수화한 값이며 지수가 높을수록 수입 감소에 따른 식량 안보 취약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됨(그림 2 참고).
- 그중에서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중동 취약국의 식량 수입 취약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1) 강문수 외(2026), 「2026 중동 사태(미국-이란 사태) 현황 및 정부의 역할(대외비)」, NRC 정부정책 참고자료(2026-04), pp. 20~21.

그림 2. 전 세계 식량 수입 취약성 지수(2023년 기준)



주: 주요 15대 작물(밀, 쌀, 옥수수, 수수, 조, 콩, 팥, 대두, 카사바, 아미, 감자, 고구마, 플랜테인, 식용유, 설탕)에 대해 칼로리 기준 수입 비중과 식량 불안정을 겪는 인구 비중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지수가 작성되었으며 색이 진할수록 취약성이 높다는 뜻임.  
자료: "Food Import Vulnerability Index (%) of All 15 Staple Foods," Food Security Portal(검색일: 2026.5.1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개도국의 식량안보 불안정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2022년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심화된 적이 있으며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잇달아 농산물 및 비료 수출을 통제하면서 대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곡물 수입 비중이 높았던 국가를 중심으로 식량 불안정이 심화됨.

- 1990년대 이후 글로벌 비료 공급 지수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러시아의 흑해 봉쇄 시기(2022년)와 중국과 러시아의 비료 수출 관세 부과 시기(2008)였으며, 특히 염화칼륨 비료(MOP)는 2022년 최대 1,200달러/톤까지 오르며 2021년 대비 5배 이상 상승한 바 있음(표 1 참고).<sup>2)</sup>
  - 다만, 중동 전쟁에 따른 비료 시장 영향은 요소 및 질소 비료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요소 구매 지불 불능 지수(Fertilizer non-affordability index)는 러-우 전쟁 당시 최고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질소 비료 구매 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sup>3)</sup>
-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1년 영양 부족 인구는 약 6억 9,750만 명(전체 인구의 8.8%)으로 전년(6억 7,010만 명) 대비 대폭 증가한 바 있으며 러-우 전쟁 여파로 2023년 영양 부족 인구도 8억 9천만 명에 육박함.<sup>4)</sup>
-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2022년 8월 31일까지 수출을 금지했던 비료의 전 세계 수출량 대비 비중은 질소 비료가 10.1%, 인산 비료가 8.6%, 칼륨 비료가 18.7%를 차지했으며, 2022년 6월 말까지 양국은 전 세계 수출량의 약 19%에 해당하는 밀 수출을 통제하 바 있음.<sup>5)</sup>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봉쇄가 이뤄지면서 2022년 7월 흑해 곡물협정 체결을 통해 흑해 지역에서의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보장했으나, 2023년 7월부터 종료된 바 있음.

2) World Bank Blog(2026. 5. 14.), "Fertilizer prices surge as Strait of Hormuz disruptions tighten supplies"(검색일: 2026. 5. 21.).

3) Ibid.

4) FAO, IFAD, UNICEF, WFP, and WHO(2025),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5," p. 5.

5) IFPRI Food & Fertilizer Export Restrictions Tracker(검색일: 2026. 5. 18.).

표 1. 1990년대 이후 비료 공급 및 가격에 영향을 준 주요 사건

분류	국가(시기)	주요 내용
에너지 공급 부족	미국(2001,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캘리포니아 에너지 위기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미국 농가들이 연료비 및 비료 비용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음(2001).</li> <li>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비료 및 농업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미 의회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에너지 거래 규제를 확대하는 법안 추진(2006)</li> </ul>
	중국(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시성의 석탄 공급 부족으로 비료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중소형 질소 비료 제조업체들이 가동을 중단함.</li> </ul>
	인도(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도 내 천연가스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국내 비료 생산에 차질을 빚음.</li> </ul>
지정학적 갈등 및 제재	벨라루스 (2021,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벨라루스의 여객기 강제 착륙 사건 이후, 국영 비료 기업 벨라루스칼리 (Belaruskali)에 대한 경제 제재가 예상되면서 칼륨(Potash) 가격이 25% 이상 급등함(2021).</li> <li>UN 위원회가 리투아니아 정부를 향해 벨라루스산 비료의 자국 영토 통과 제한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2023)</li> </ul>
	러시아(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에 따른 대러 제재로 인해 아프리카로 가는 비료 공급망 단절</li> </ul>
국별 농업 위기	북한(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은 심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한국에 비료 지원 관련 회담 제안</li> </ul>
	인도네시아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료 부족 사태로 인해 벼 농가에 모조 비료 판매 급증</li> </ul>
	방글라데시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글라데시의 한 비료 공장이 저장 공간 부족 사태를 겪으며 8,500톤의 비료가 야외에 노출됨.</li> </ul>
	중국(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식량 공급 위기에 대응해 중국 베이징 당국이 비료 수출에 최대 135% 관세 부과</li> </ul>
환경	미국(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플로리다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하수 및 농장 유출수(비료 등)에 대한 첫 수치적 제한 기준 제안</li> </ul>
기타	글로벌(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로나19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농가가 종자와 비료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UN이 글로벌 식량 공급 위기를 경고함.</li> </ul>

자료: Morão, H.(2025),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fertilizer supply shocks. Food Policy," 133, 102835. p.15를 바탕으로 재구성.

## 2. 중동발 비료 공급 현황

### 가. 중동 주요국의 비료 수출 비중

■ 중동은 글로벌 비료 및 비료 원료의 핵심 공급지로서 세계 비료 시장과 주요 농업국의 식량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중동은 질소 비료의 핵심 원료인 암모니아, 대표적 질소 비료인 요소, 인산 비료(DAP)의 주요 공급지로서 2023~24년 평균 기준 세계 수출의 각각 27.2%, 38.8%, 27.6%를 차지함(그림 3).

- 세부적으로 중동은 비료 제조의 핵심 원료인 황 수출의 4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약 23.1%)와 카타르(약 8.8%)가 주요 공급국임.<sup>6)</sup>

6) Havard Growth Lab,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 암모니아 수출은 사우디아라비아(약 12,4%), 오만(약 5%), 요소 수출은 오만(약 9.9%), 사우디아라비아(약 8%)가 각각 주도함.
- 중동의 높은 수출 비중은 중동산 비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공급 취약성으로 이어지며, 특히 곡물 생산 규모가 큰 국가를 중심으로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영향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그림 4).<sup>7)</sup>
- 주요 비료 수입국의 중동 의존도는 품목별로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인도는 전 품목에 대해 의존도가 높아 중동산 공급 불안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됨.
- 한국은 2021년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이후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중동 비중이 확대되어 현재 전체 요소 수입의 약 19.3%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황 또한 46.3%로 중동산 수입 비중이 높음.

그림 3. 지역별 주요 비료 수출 비중



주: 2023~24년 평균치.  
자료: IFASTAT

그림 4. 주요 국가별 중동산 비료원료 수입 비중



주: 2023~24년 평균치.  
자료: Harvard Growth Lab, The Atlas of Economic Complexity.

7) FAO(2026).

■ 호르무즈 해협은 주요 비료원료인 LNG와 비료가 동시에 통과하는 핵심 해상 운송로로, 통항 차질 발생 시 에너지 가격과 글로벌 비료 공급망에 복합적인 충격을 유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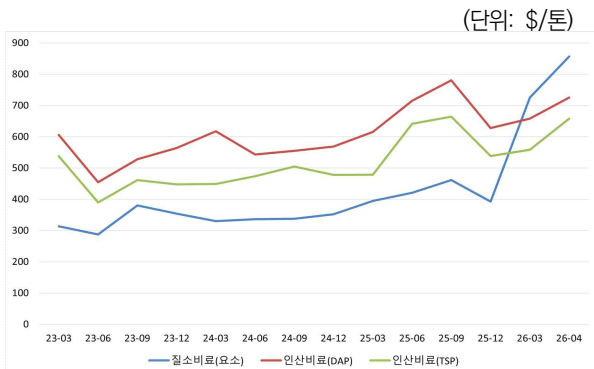
-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LNG 교역의 약 20%, 비료 교역의 최대 30%가 통과하는 핵심 운송 경로임.<sup>8)9)</sup>
  - 중동은 아시아의 전체 LNG 수입의 약 27%를 공급하는 동시에 질소·인산 비료 및 원료의 핵심 수출지역임.<sup>10)</sup>
  - 이에 따라 호르무즈 통항 차질은 △LNG 공급 감소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 △암모니아·요소 등 질소 비료 생산비 상승, △황 공급 차질에 따른 인산 비료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한편 중동의 세계 최대 비료 공장들은 페르시아궤프만에 위치하여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은 수출시장의 유일한 해상 출구임.<sup>11)</sup>

## 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비료가격 추이와 잠재적 영향

■ 전쟁 발발 이후 국제 비료 가격과 비료원료 가격은 단기간 내 급등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 평균 비료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5~2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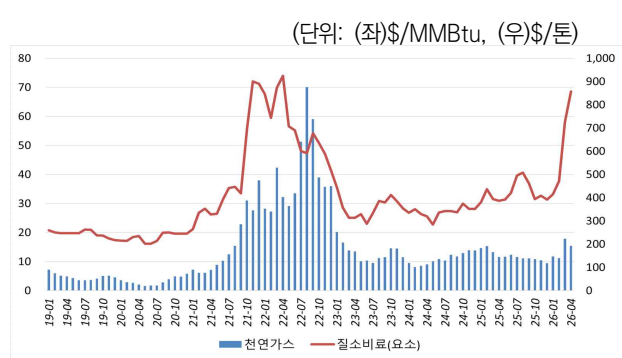
- 주요 비료(질소, 인산) 가격은 2026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비료 및 원료 공급 차질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임(그림 5).
  - 2026년 4월 기준, 전쟁 발발 직전인 2월 대비 요소 가격은 평균 약 81%, 인산 비료 가격은 약 20% 상승함.
- 특히 천연가스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요소는 LNG 공급 차질로 2026년 3월 천연가스 가격이 전월 대비 약 60% 상승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됨(그림 6).
  - 다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따라 LNG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되면 카타르산 요소 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임.

그림 5. 주요 비료 가격 추이



자료: World Bank Commodities Price Data.

그림 6. 질소 비료(요소) 및 천연가스 가격 추이



주: TTF 가격을 기반으로 한 유럽 천연가스 대표 지표.  
자료: World Bank Commodities Price Data.

8) IEA(2026).

9) IFPRI(2026).

10) *Ibid.*

11) The Guardian, “Food security timebomb’: a visual guide to the Gulf fertiliser blockade”(검색일: 2026. 5. 14.).

12) *Ibid.*

- 호르무즈 해협발 비료 수급 불안 장기화가 주요 비료 수출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이어질 경우 글로벌 비료 공급 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2022년 러-우 전쟁 발발 시 러시아, 중국, 이집트 등 주요 비료 수출국들은 자국 농업용 수요를 우선 확보하기 위해 비료 수출을 제한한 바 있음.
  - 당시 세계 비료 가격지수는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약 55% 상승하였고, 식품 가격지수 또한 1990년 지수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sup>13)</sup>
- 최근 전 세계 황산 수출의 약 23%를 차지하는 중국이 2026년 5월부터 황산 수출 제한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짐.<sup>14)</sup>
  - 이에 따라 국제 황산 가격이 단기간 내 급등하고 있으며, 미국 걸프 지역으로 향하는 황산 가격은 전쟁 이전 대비 약 2.6배 상승함.

### 3. 중동 전쟁이 글로벌 곡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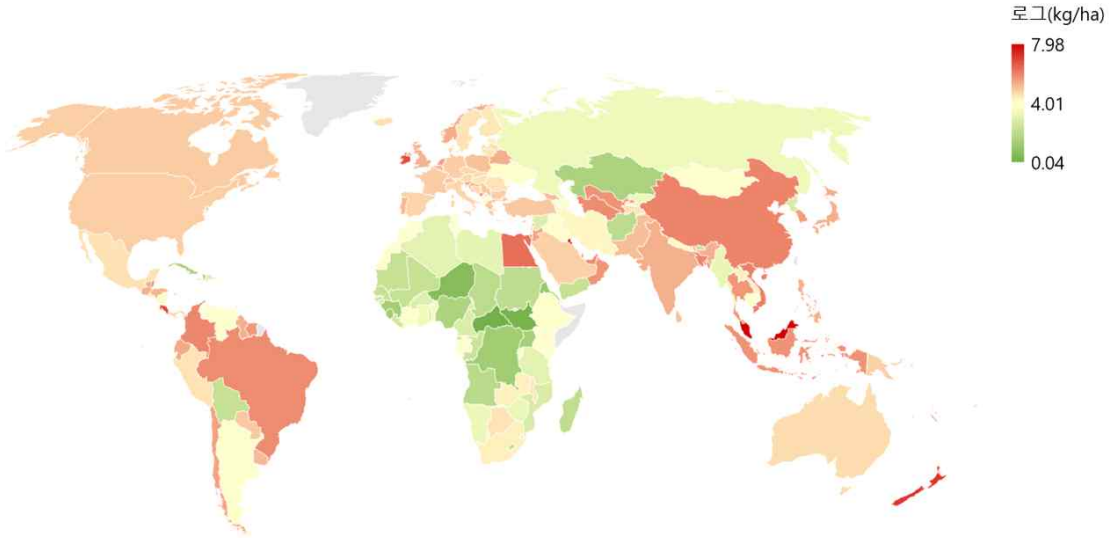
- 국별 단위 면적당 비료 사용량은 주로 동아시아, 남미, 유럽 일부 국가에서 높으며, 주요 곡물 생산국(미국,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을 중심으로 주요 곡물에 대한 질소 비료 사용 집중도가 높아 쌀, 밀, 옥수수 등의 주요 곡물이 비료 공급 차질 및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단위 면적당 비료 사용량이 많은 국가는 주로 남미, 동아시아권 국가이며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의 비료 사용량은 이집트(532.8kg/ha)를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수준임(그림 7).
  - 2023년 기준 헥타르당 비료 사용량은 말레이시아(2,926kg/ha), 쿠웨이트(2,008kg/ha), 뉴질랜드(1,291kg/ha), 코스타리카(1,024kg/ha) 순으로 높으며 단위 면적당 비료 사용량이 50kg 미만인 국가는 저소득국과 중저소득국을 중심으로 66개국에 이르고 있어 비료 소비 양극화가 심각함.<sup>15)</sup>
  - 중국을 포함한 주요 곡물 생산국(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러시아) 6개국 중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의 단위 면적당 비료 사용량이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질소 비료 단가 상승은 주요 곡물 공급 국가를 중심으로 곡물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음.

13) FAO(2022).

14) S&P Global, "Global sulfur prices surge on Middle East disruptions, China export ban"(검색일: 2026. 5. 13.).

15) "Fertilizer use per hectare of arable land," Our World in Data(검색일: 2026. 5. 21.)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그림 7. 국별 단위 면적당 비료 사용량(2023년 기준)



자료: "Fertilizer use per hectare of arable land," Our World in Data(검색일: 2026. 5. 2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다만, 질소 비료 투입 집중도(intensity)는 대두보다는 옥수수, 밀, 쌀 등의 곡물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중동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는 식용유보다는 곡물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 주요국의 작물별 질소 비료 투입 집중도가 높은 품목은 쌀과 옥수수이며 대두는 작물 특성상 상대적으로 질소 비료 사용 집중도가 낮음(표 2 참고).
  - 특히 주목할 점은 주요국의 옥수수(미국, 중국, EU, 우크라이나) 및 쌀(인도, 중국, 태국 등) 파종 시기가 4~6월에 집중되어 있고 비료 공급 시기는 파종기 이후인 6~8월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요국의 곡물 생산비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이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sup>16)</sup>
  - 주요국(미국, EU, 중국, 인도, 우크라이나 등)의 겨울 밀(Winter wheat) 수확 시기는 7~8월 사이이며, 3~5월 사이에 비료가 집중적으로 공급되므로 비료 가격 상승의 여파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음.
  - 비료 가격 상승에 따라 사료용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면 곡물 사료 비중이 높은 축산업계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비료 가격 상승과 함께 2026년 하반기에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북미 및 중남미 지역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sup>17)</sup>
  -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예년보다 습윤할 것으로 예측되면 반면, 브라질은 예년에 비해 건조할 것으로 전망됨.

16) EIU(2026. 5. 15.), "Higher fertiliser costs will hit crops from H2"(검색일: 2026. 5. 22.).

17) *Ibid.*

표 2. 주요 곡물 생산국의 질소 비료 투입 집중도

(단위: 지수)

국가	옥수수	밀	쌀	대두
아르헨티나	54	66	59	22
브라질	59	50	68	23
인도	53	57	67	23
러시아	62	37	71	30
중국	62	43	69	26

주: 지수는 0~100점 사이이며, 50점이 국별 질소 비료 평균 소비량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작물에 대한 질소 비료 투입 집중도가 높다는 뜻임.  
자료: EIU(2026. 5. 15.), "Higher fertiliser costs will hit crops from H2"(검색일: 2026. 5. 22.).

■ 비료 가격과 국제 곡물 및 식용유 지수는 대체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곡물 가격은 비료 공급 측면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대두 및 식용유는 화석연료 대체를 위한 글로벌 바이오 에탄올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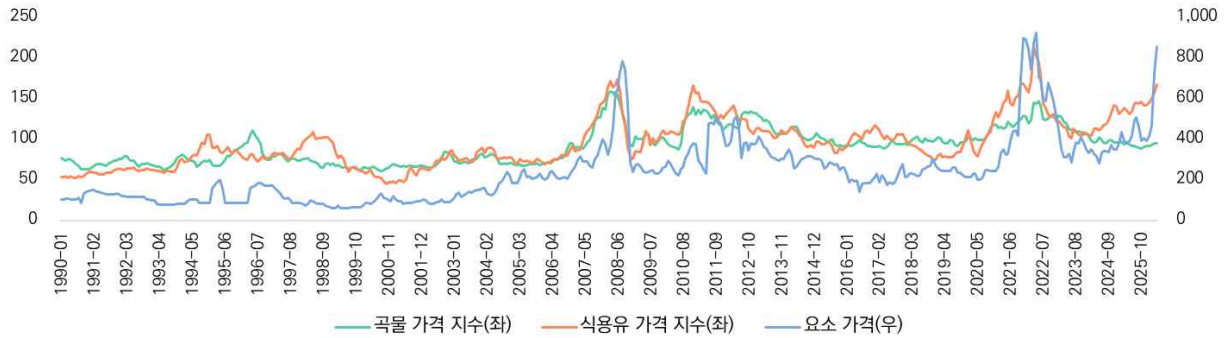
- 비료 가격이 상승했던 시기인 2007년(중국발 원유 수요 급증), 2021년(코로나19 이후 수요 급증), 2022년(러-우 전쟁에 따른 공급 제약)을 중심으로 곡물 가격 지수와 식용유 가격 지수가 동반 상승한 사례가 있음.
  - 미국의 이란 침공 이후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특히 식용유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는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효과라기보다는 바이오 에탄올 수요 증가로 인한 대두 가격 상승에 따른 효과라고 볼 수 있음(그림 8 참고).
  - 주목할 점은 비료 원료인 요소 가격은 러-우 전쟁 발발 이후 급등한 이후 2023년 초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곡물 가격 지수는 시차를 두고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점이며, 이는 중동 전쟁이 종료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더라도 곡물 가격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은 대체재인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식용유의 원료인 옥수수, 사탕수수 및 대두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음.
  - 중동 전쟁이 지속되면서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 혼합 휘발유에 대한 팜오일 혼합률을 40%에서 50%로 늘렸으며 베트남은 6월 1일부터 에탄올이 혼합된 휘발유 공급으로 전면 전환 계획을 밝힘.<sup>18)</sup>
  - 미국을 중심으로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에 따른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이어지면서 대두 가격은 전쟁 전과 비교해서 23% 상승한 바 있음.<sup>19)</sup>
  - 식용유 가격 지수는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작물 생산 단가 상승으로 인한 효과와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 효과가 동반되면서 2023년 이후 곡물 가격 지수 대비 낮은 하락폭을 보이고 있으며,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식용유 가격 지수 상승이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음.

18) Reuters(2026. 4. 21.), "Biofuels back in vogue as Iran war triggers oil price surge"(검색일: 2026. 5. 20.).

19) Financial Times(2026. 5. 11.), "Hedge funds bet on biofuels to profit from Iran oil price shock"(검색일: 2026. 5. 20.).

그림 8. 글로벌 비료 및 곡물·식용유 가격 지수 추이

(단위: 지수(좌), 달러/톤(우))



주: 2014-16=100.

자료: World Bank Commodities Price Data 및 FAO Food Price Index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23년 기준 주요 비료 소비국 중에서 주요 곡물 생산국은 질소 비료와 인산 비료를 중심으로 대중동 의존도가 높게 나타남(표 3).

- 질소 비료 대중동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호주(51.8%)이며, 자국에서 질소 비료 생산이 이뤄지는 중국(2023년 기준 3,100만 톤을 자국에서 생산), 인도(1,710만 톤), 미국(1,380만 톤), 인도(1,250만 톤)를 제외하면, 브라질, 태국 등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음.
  - 다만, 미국과 인도는 질소 비료 수입 규모가 각각 400만 톤과 610만 톤에 이르고 있어 국제 비료 가격 상승의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인산 비료의 대중동 수입 의존도는 미국(34.8%), 인도(25.7%), 호주(24.0%) 순으로 높으나, 브라질은 국내 인산 비료 생산량이 연간 200만 톤에 그치고 있어 연간 수입량(470만 톤)을 고려했을 때, 중동발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세계 밀 수출의 10%, 옥수수 39%, 대두 66%를 차지하는 핵심 농산물 수출 국이지만, 국내 비료 수요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임.<sup>20)</sup>
-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등과 함께 주요 곡물 생산국인 러시아는 국내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자국 수요의 대부분을 자체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러시아는 질소 비료(1,250만 톤), 인산 비료(430만 톤), 칼륨 비료(910만 톤) 등의 2023년 기준 연간 생산량이 2,590만 톤에 이르는 반면, 소비량은 350만 톤에 그치고 있어 중동발 비료 가격 상승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을 전망이다.<sup>21)</sup>

20) IFPRI, "The Iran war: Farmers in Brazil and Argentina face rising fertilizer and energy prices"(검색일: 2026. 5. 21.).

21) "Inputs: Fertilizer Product," FAOSTAT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표 3. 10대 비료 수입국의 대중동 수입 의존도

(단위: 백만 톤, %)

국가	질소 비료		인산 비료		칼륨 비료		총수입 규모
	수입 규모	대중동 비중	수입 규모	대중동 비중	수입 규모	대중동 비중	
브라질	6.4	16.9	4.7	10.5	8.4	0.0	19.4
미국	4.0	22.3	1.4	34.8	7.3	0.0	12.7
인도	6.1	16.9	3.5	25.7	2.2	0.5	11.8
중국	0.4	40.5	0.2	0.0	7.3	0.0	7.9
호주	2.1	51.8	0.6	24.0	0.3	0.1	3.0
튀르키예	1.9	3.5	0.4	6.5	0.2	0.2	2.6
프랑스	1.8	2.3	0.4	0.0	0.4	0.0	2.5
말레이시아	0.5	2.1	0.2	0.5	1.9	3.6	2.5
인도네시아	0.4	6.1	0.5	0.0	1.6	0.0	2.5
태국	1.6	47.2	0.3	3.2	0.5	0.0	2.4

주: 2023년 기준 데이터.

자료: FAOSTAT(검색일: 2026. 5. 20.).

■ 식량 및 비료의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될 경우 주요 생산국을 중심으로 수출 제한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제 식품 및 비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과거 코로나19 및 러-우 전쟁 시기에도 주요 농산물 및 비료 수출국들은 자국 공급 안정을 위해 식량과 비료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표 4).
  - 2026년 5월 기준, 현재까지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수출 제한 조치는 총 3건으로 코로나19(31건)와 러-우 전쟁(72건) 대비 제한적인 수준이나 전쟁 장기화 시 추가적인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sup>22)</sup>
- 식량 및 비료 수출 제한 조치 강화로 국제 비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주요 비료 소비국들의 농산물 생산비 부담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글로벌 비료 가격 상승을 가정했을 때, 중국의 질소 비료와 인산 비료 생산비 증가 규모(각각 192달러/ha, 73달러/ha)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칼륨 비료는 브라질이 가장 높은 비용 증가(70달러/ha, 124달러/ha)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그림 9).

표 4. 주요 글로벌 위기 시 식량 및 비료 수출 제한 사례

글로벌 위기	국가	품목	조치
코로나19	러시아	밀, 쌀 등 모든 곡물	수출금지
러-우 전쟁	중국	비료	수출금지(인산칼슘), 수출통제(비료 전품목)
	인도	밀	수출금지
	러시아	밀, 비료	수출금지
미-이란 전쟁	중국	비료	수출통제

주: 1) 주요 농산물 및 비료 수출국(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인도, 러시아) 중심 정리.

2) 중국은 공식적인 비료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세관 검사 강화 등을 통한 사실상의 수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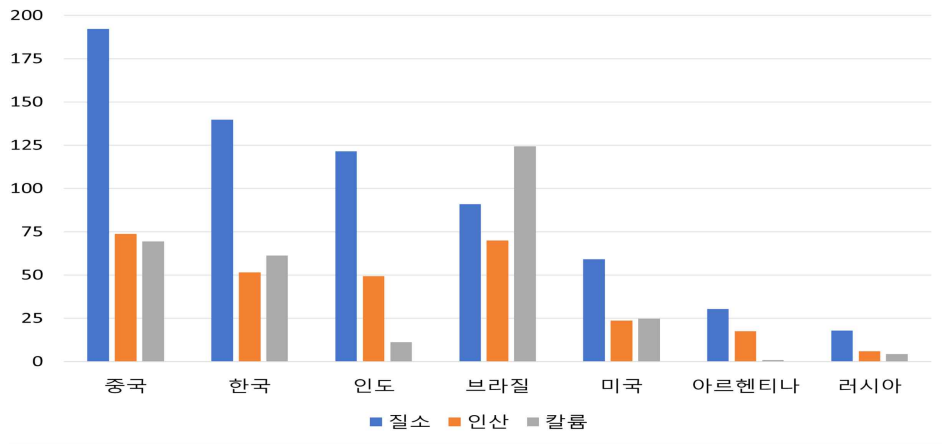
자료: 1) IFPRI, "Food and Fertilizer Export Restrictions Tracker"(검색일: 2026. 5. 21.).

2) Reuters, "China tightens border inspections for fertilizer exports, sources say"(검색일: 2026. 5. 21.).

22) IFPRI, "Food and Fertilizer Export Restrictions Tracker"(검색일: 2026. 5. 21.).

그림 9. 국가별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산물 생산비 증가 규모 전망

(단위: 달러/ha)



주: 2023년 기준 국가별 ha당 비료 사용량을 바탕으로 국제 비료 가격이 1kg당 1달러 상승할 경우 농산물 생산비 증가 규모를 추정함.

자료: FAOSTAT(검색일: 2026. 5. 20.).

#### 4. 개도국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과 중동 전쟁에 따른 영향

■ 글로벌 사우스 지역은 대체로 중동산 비료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천연가스의 부산물인 질소 비료를 중심으로 대중동 의존도가 높음.

- 지역별로 질소 비료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37.0%)이며 대중동 DAP, MAP, 요소 수입 의존도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중동발 비료 공급 위기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음(표 5 참고).
- 반면 질소 비료 수입량이 많은 유럽 & 중앙아, 중남미 등의 대중동 질소 비료 수입 의존도는 각각 7.3%와 15.5%에 불과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비료 수급 불안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위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연평균 지역별 질소 비료 수입량은 2021~23년 평균 기준 유럽 및 중앙아(1,424만 톤), 중남미(1,101만 톤), 동아시아 & 태평양(767만 톤), 남아시아(680만 톤), 북미(531만 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426만 톤), 중동 및 북아프리카(118만 톤) 순임.<sup>23)</sup>

23) FAOSTAT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표 5. 지역별 대중동 비료 수입 의존도

(단위: %)

품목명	동아시아 & 태평양	북미	유럽 & 중앙아	중동	남아시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중남미
NPK	0.8	0.0	0.2	7.0	4.9	4.2	0.0
염화칼륨 비료(MOP)	0.2	0.1	0.1	2.5	0.1	2.6	0.0
요소	47.8	38.1	13.7	39.9	34.3	58.3	24.4
인산이암모늄(DAP)	4.7	31.5	1.5	7.3	23.1	27.8	7.0
제1인산암모늄(MAP)	14.1	5.5	0.0	1.2	2.5	22.5	7.4
질소 비료(N) 총계	29.3	23.6	7.3	16.4	32.9	37.0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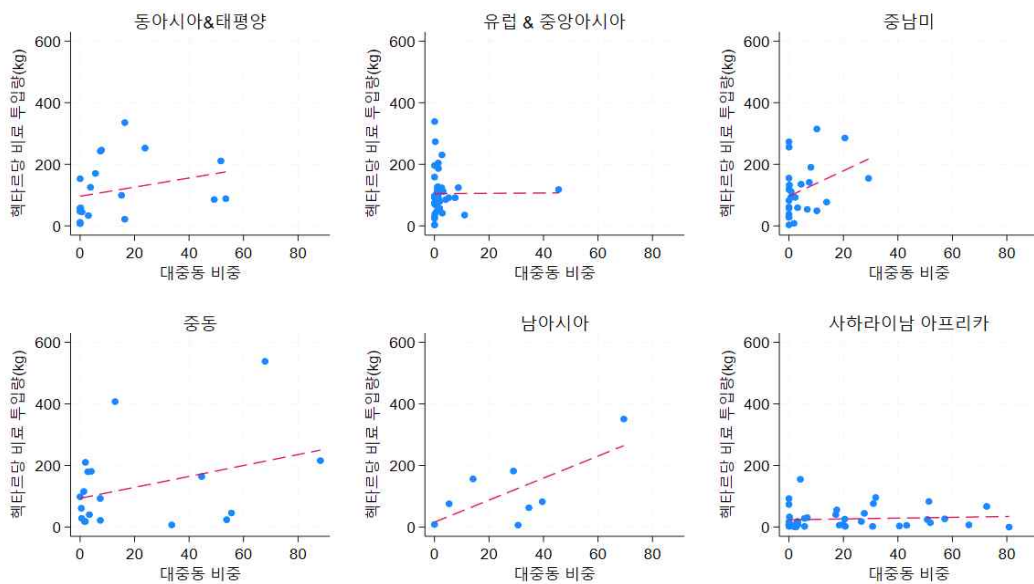
주: 2021~23년 평균 기준이며 HS 코드 기준은 3102(질소 비료), 310520(NPK), 310420(MOP), 310530(DAP), 310540(MAP), 310280(요소)임.

자료: FAOSTAT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유럽, 중남미, 동아시아 등의 국가는 중동산 질소 비료 공급이 감소하면 국제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국제 비료 가격 상승 및 중동산 비료 수입 감소 영향이 중첩 될 것으로 보임(그림 10 참고).
- o 유럽 및 중앙아시아와 중남미는 단위 면적당 비료 투입량이 높더라도 대중동 질소 비료 의존도가 대체로 낮게 나타나며, 동아시아 & 태평양 및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대중동 질소 비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많지 않아 국제 비료 가격 상승 혹은 중동산 비료 도입 축소에 따른 비료 사용량 감소가 우려되는 국가는 일부 국가에 불과함.
- o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단위 면적당 비료 투입량이 가장 낮은 지역이면서도 대중동 비료 수입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국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질소 비료 수입 감소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비료 투입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그림 10. 지역별 각국의 비료 투입량과 대중동 질소 비료 수입 비중

(단위: kg/ha(y축), %(x축))



주: 2021~23년 평균 기준이며 파란색 점은 국별 수치임.

자료: FAOSTAT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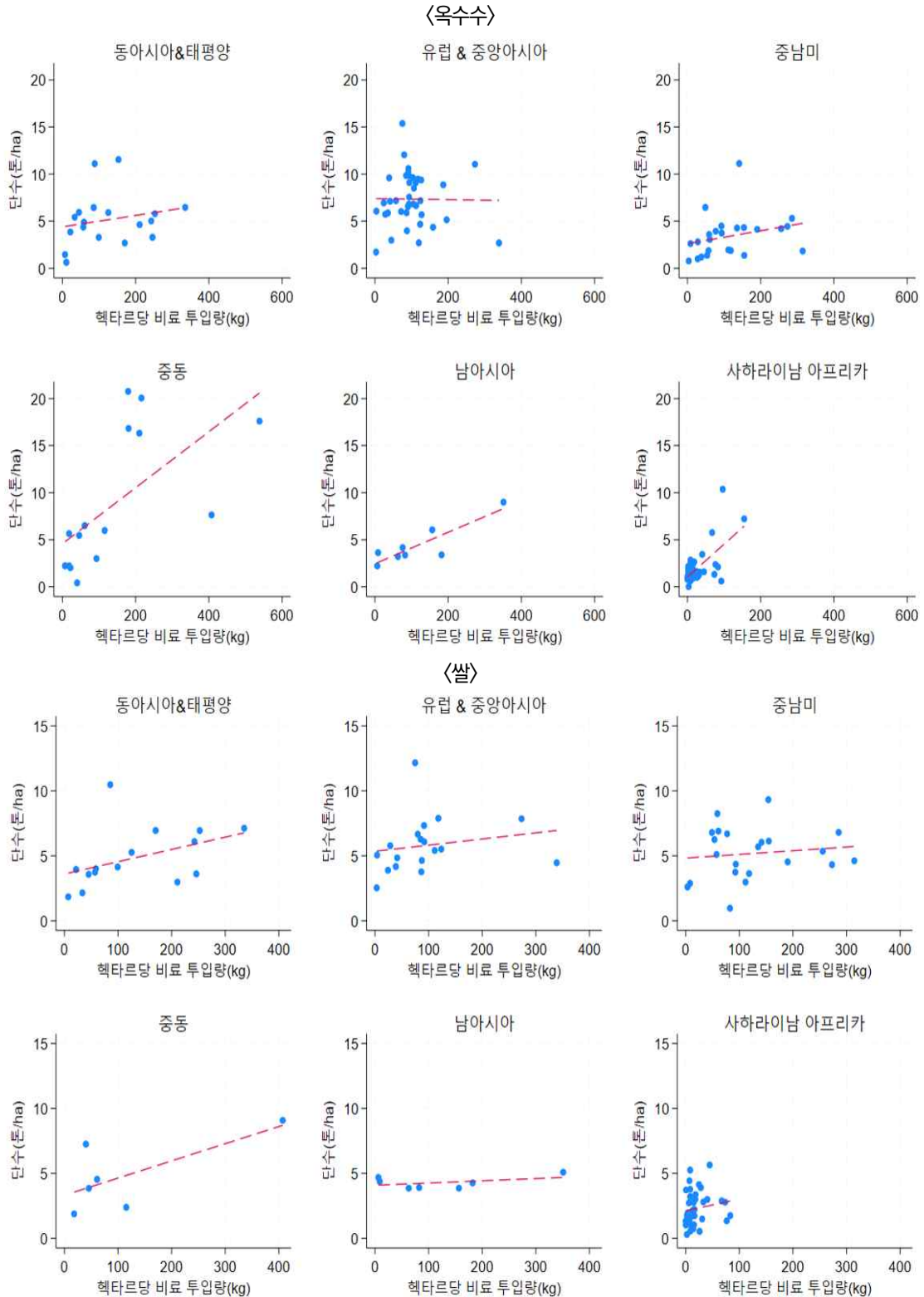
■ 단위 면적당 비료 공급량은 옥수수 및 쌀 생산성과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어 비료 공급 감소에 따른 개도국 내 작물 생산성 하락이 우려됨(그림 11).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단위 면적당 비료 투입량이 평균적으로 높으며 단위 면적당 곡물 생산량과 정비례하고 있어 비료 공급량 감소에 따른 생산량 저하가 예상된다.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는 구조적으로 비료 투입량이 매우 낮아 단위 면적당 곡물 생산량도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료 가격 상승과 공급 제약에 따른 투입량 감소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생산성 저하를 넘어 역내 곡물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옥수수] 동아시아, 유럽 등의 지역은 대체로 단위 면적당 옥수수 생산량이 높은 편이고 비료 투입량도 높은 수준을 보이며, 중남미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상업 영농 기반의 생산이 이뤄지고 있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낮더라도 옥수수 생산 규모가 크나,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로 단위 면적당 옥수수 생산량과 비료 투입량이 모두 낮아 비료 공급량이 줄어들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지역별 옥수수 단수(yield)는 북미(10.65톤/ha), 중동(8.85톤/ha), 유럽 및 중앙아(7.34톤/ha), 동아시아(5.15톤/ha), 남아시아(4.38톤/ha), 중남미(3.40톤/ha), 사하라이남 아프리카(1.94톤/ha)이며, 북미(약 3억 8,863만 톤), 동아시아(3억 2,055만 톤), 중남미(2억 824만 톤)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이루어짐.
- [쌀] 쌀은 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생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대체로 헥타르당 4~5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비료 투입량이 감소하면 생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지역별 쌀 단수는 북미(8.54톤/ha), 유럽 및 중앙아(5.79톤/ha), 중남미(5.18톤/ha), 동아시아(4.85톤/ha), 중동(4.83톤/ha), 남아시아(4.29톤/ha), 사하라이남 아프리카(2.30톤/ha) 순이며, 주요 생산국을 보더라도 중국(7.1톤/ha), 인도(4.3톤/ha), 인도네시아(5.3톤/ha), 방글라데시(5.1톤/ha), 태국(3톤/ha) 등 아시아 국가와 나이지리아(1.9톤/ha), 마다가스카르(2.7톤/ha), 탄자니아(3톤/ha) 등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간 생산성 격차를 보임.<sup>24)</sup>

24) FAOSTAT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11. 지역별 각국의 옥수수 및 쌀 생산성과 비료 투입량

(단위: kg/ha(x축), 톤/ha(y축))



주: 비료 투입량은 2021~23년 평균 기준이며, 작물 생산량은 2021~24년 평균 기준임. 파란색 점은 국별 수치임.  
자료: FAOSTAT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요소 가격이 급상승했던 2021년 이후 지역별 옥수수 및 쌀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중남미, 남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관찰됨.

-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글로벌 곡물 및 유지류 가격 상승세는 일정 시점이 지나면 하락세로 전환되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개도국을 중심으로 옥수수 및 쌀 가격 지수가 2025년까지 상승세를 이어간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개도국을 중심으로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 전쟁이라는 외생적 충격에 따른 비료 가격 상승뿐 아니라, 개도국 정부의 재정 역량 부족, 2020년대부터 두드러진 달러 강세 및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후 충격 등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sup>25)</sup>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비료 공급 축소는 개도국 내 주요 곡물 가격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밀, 옥수수 등 주요 농산물 수출을 통제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했던 것과 달리, 중동 국가별 질소 비료 및 원료 수출 제약은 일시적인 곡물 가격 급등보다는 점진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개도국 곡물 가격에도 시차를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2026년 하반기부터 가격 추이 관측 필요

그림 12. 비료 가격과 지역별 옥수수 가격 추이

(단위: 지수(좌), \$/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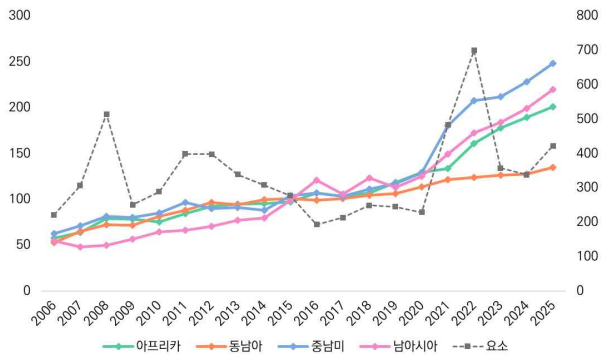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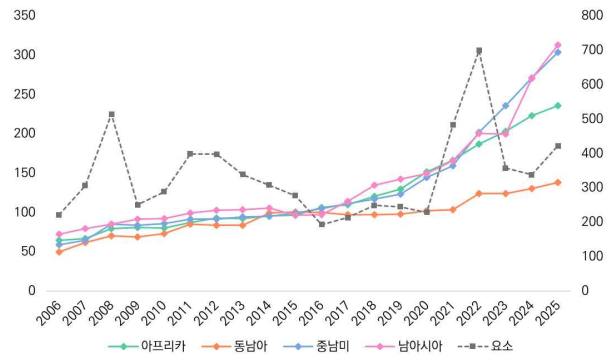


그림 13. 비료 가격과 지역별 쌀 가격 추이

(단위: 지수(좌), \$/톤(우))



주: 2014-2016=100.

자료: World Bank Commodities Price Data, FAOSTAT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대중동 비료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에서 식량 수입 취약성이 높은 국가는 대체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로, 이는 중동발 비료 공급 제한이 다른 지역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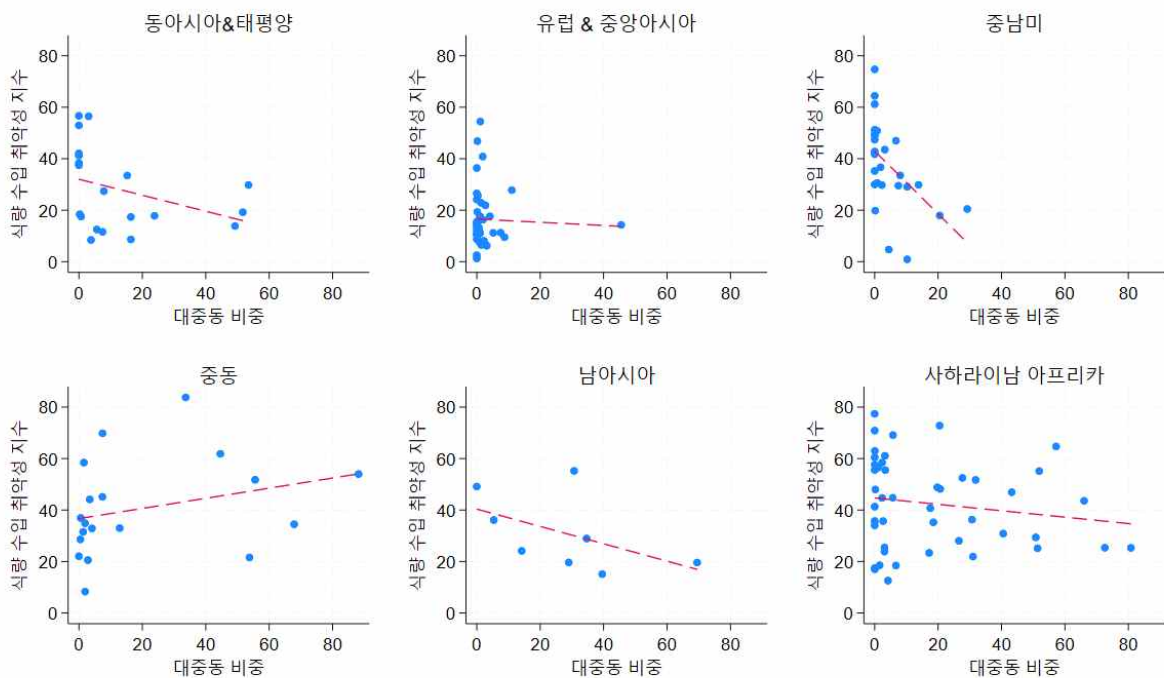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대중동 비료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과 아프리카향 비료 공급량 감소 영향이 함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는 식량 수입 취약성 지수 심화로 이어질 수 있음.

25) FAO, IFAD, unicef, WFP, and WHO(2025),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5," pp. 48-52.

- 중동 지역에서 대중동 질소 비료 의존도가 높으면서도 식량 수입 취약성 지수가 높은 국가는 오만, 쿠웨이트, 예멘, 요르단 등의 국가이나, 오만과 쿠웨이트는 정부 재정 역량이 우수하고 국내 기후환경상 농산물을 수입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요르단과 예멘 내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는 태국과 뉴질랜드가, 유럽에서는 튀르키예가, 남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대중동 질소 비료 의존도가 높으나, 대체로 식량 수입 취약성 지수는 낮고 비료 수입 다변화가 가능한 국가들임.

그림 14. 지역별 각국의 대중동 질소 비료 수입 의존도와 식량 수입 취약성 지수

(단위: %)



주: 2021~23년 평균 기준이며 파란색 점은 국별 수치임.  
자료: FAOSTAT, Food security portal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및 비료 원료 수출 차질로 인한 비료 가격 상승은 저소득국 비료 이용량 감소, 가격 전이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영양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됨에 따라 2026년 4월 DAP(인산이암모늄) 비료와 요소의 톤당 가격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14.2%와 121.4% 상승한 725.25달러와 856.88달러를 기록하면서 특히 글로벌 사우스 지역의 식량 공급 안정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짐.
-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에 동일하게 노출되더라도 저소득국이 받는 충격은 고소득국의 4~5배 수준이며 특히 정부 재정 역량이 제한된 저소득국은 에너지 충격에 따른 영향이 고소득국의 최대 9배까지 높아질 수 있음.<sup>26)</sup>
  - 저소득국 정부의 농업 부문 지출은 농촌 주민 1인당 8달러에 불과해 보조금 지급 등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외부 충격 흡수가 어려우며 에너지 및 비료 가격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은 농가의 구매력 약화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짐.

## 5. 시사점

■ 중동 호르무즈 해협발 질소 비료 위기에 따른 주요 농산물 가격 상승에 대비한 국제 공조가 요구되며, 특히 정부 재정이 취약한 개도국과의 개발협력을 통한 농산물 지원이 필요함.

- 비료 및 곡물 수입 취약성이 높은 개도국은 국내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통제하고 있으나, 국내 연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하에서는 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 여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개발협력 재원이 축소되고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하에서는 식량 수입 취약성이 높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및 중동·아시아 취약국을 중심으로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인구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재원을 활용하여 단기적으로는 개도국에 대한 주요 곡물 및 식용유 공급 원활화를 지원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농지 생산성이 낮은 아프리카, 동남아 국가에 대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력 사업 확대가 필요
  - 개발협력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개도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안보 개선을 이룰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곡물 도입선 다변화를 노려볼 수 있음.

■ 요소, 암모니아, 황산, 천연가스, 칼륨(Potash) 등 비료 원료 도입 다변화 및 비료 공급 원활화를 위한 국제 협력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중동을 제외한 국가 중에서 비료 시장 영향력이 큰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 농업 생산을 위한 비료 수요도 크기 때문에 비료 원료 수입 다변화와 함께 질소 혼합 비료 공급원 다변화를 위한 공급처 발굴이 요구됨.
  - 주요 비료 수출국은 러시아,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벨라루스 등이며, 중국은 자국 비료 수요 충당을 위해 수출 통제를 실시한 바 있는 만큼 요소, 황 등의 비료 원료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중국도 비료 수출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sup>26)</sup>
- 글로벌 사우스 중에서도 산유국과의 협력을 통한 현지 비료 생산 지원 및 기업 육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비료 공급 원활화도 도모할 수 있음.
  - 아프리카 연합은 2024년 아프리카 비료 및 토양 건강 정상회담 선언을 통해 2034년까지 아프리카 내 양질의 비료 공급 및 접근성 강화를 선언했으며 역내 생산 및 AfCFTA를 통한 역내 공급에 합의<sup>28)</sup>

26) Foster and Dalheimer(2026), "The Iran Conflict and Global Food Security: Why the Burden Falls Hardest on the World's Most Vulnerable," Extension Brief #2026-3, pp. 4-5.

27) 무역협회(2026. 4. 1.), 「이란전쟁으로 요소비료 가격 급등...'생산국' 中 영향력 커질것」(검색일: 2026. 5. 22.).

28) AU(2024), "Draft Declaration on Africa Fertilizer and Soil Health Summit," pp. 3-5.

- 국내 질소 비료 생산은 남해화학, 팜한농, KG케미칼 등이 주도하고 있으나, 개도국으로의 비료 수출 측면에서는 주요 비료 수출국과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부족하므로,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산유국 현지 비료 공장 설립 및 한국으로의 수출 물량 확보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비료 확보를 위해 EU가 비료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중국이 비료 수출을 통제하는 등 국별 비료 공급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화학 비료 확보와 함께 유기질 비료 생산 등의 바이오 비료 전환과 같이 중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유럽연합은 비료 행동계획 발표를 통해 EU 공동농업정책(CAP) 내 농업 예비비를 대폭 확대하고 농가의 비료 구입을 위한 유동성 확보, 가축 분뇨를 활용한 비료 사용 촉진, 바이오 비료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시사하는 한편, EU 비료 가치사슬 파트너십 출범, 비료시장관측소의 가격 데이터 수집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비료 및 원자재의 공동 구매 및 비축 강화를 꾀하기로 함.<sup>29)</sup>
- 중동 지역 주요 비료 공급국의 수출 원활화를 위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관한 국제 협력이 요구되며,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비료 공급 제약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위한 국제 공조를 주도함으로써 중동 지역 내 한국의 역할을 강화함과 동시에 글로벌 에너지 및 비료 시장에 대한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요구됨. **KIEP**

29) European Commission(2026. 5. 19.), "Commission presents plan to secure Europe's fertiliser supply and food security"(검색일: 2026. 5. 22.).